



##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26일 월요일 음 12월 8일 (조금)

## 기상정보



## 흐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C, 낮 최고기온은 6~10°C로 예상된다. 저녁부터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다. 도로 살얼음 및 빙판길에 주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30%
30%	성산	60%
30%	고산	30%
30%	서귀포	60%

## 주간예보 &lt;문의 ☎ 국번없이 131&gt;

내일 대체로 흐림 2/11°C  
모레 구름많음 1/10°C

해뜰 07:34	달뜰 11:30
해침 17:59	달침 00:33
만조 03:47	간조 10:08
15:34	22:42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 월드뉴스

## 미 미네소타서 연방 요원 총격 사망 또 발생

## “방어 사격” 해명 속 시위 확산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에 의한 사망 사건이 17일 만에 또 발생했다.

이에 미네소타는 물론 전국적으로 연방 요원의 무차별 단속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24일(현지시간) 유튜브를 통해 중계한 기자회견에서 37 세 백인 남성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현장에서 1마일(약 1.6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사건 직후 분노한 시위대 수백



최루 가스 살포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거리.  
연합뉴스

명이 현장에 몰려들어 도로를 점거하고 ICE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연방 요원들은 최루ガ스를 살포하고 섬광탄을 발사하는 등 통제 및 진압 조치를 시행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 요원들이 “혼란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들을 미네소타에서 철수시키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한국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육 편집국장 고 대 로

④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halla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구포지사 732-5555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기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 감귤보급품종(1~3년생)

-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리봉 ● 궁전
- 유리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 ※ 국내육성품종(1~3년생)

-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 포트묘목

-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리봉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축진흥청 통상등록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강정종묘  
종남농장

신품종  
우량묘  
포트묘

제18-서귀포-2019-20-03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밀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품종통상실시 계약약정
- 다양한 년수 포트묘 보유중

## 등록품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레드향,  
하귤, 유리조생, 레몬.

## 신품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카라향, 레드향,  
하귤, 유리조생, 레몬.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hmyook**  
www.sahmyook.co.kr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 백록담



위영석  
뉴미디어 부국장

## 코스타 체제 제주SK FC 2026시즌 비상 가능할까

기도 했다. 필자도 프로야구 팀 LG 트윈스를 좋아하고 2023년에 이어 지난해 왕조시대를 여는 통합우승에 성공해 팬으로서 행복했다.

프로축구는 야구보다는 열성적 이기는 않지만 스포츠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제주SK를 응원한다. 그런데 제주지역에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K리그1 제주SK의 지난해 성적을 보면 제주도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학구파 감독으로 알려진 김학범 감독이 팀을 맡은지 2년째였지만 중위권은 고사하고 하위권을 맴돌다 결국 K리그 2 수원삼성과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벌이는 수모를 당했다. 리그 중반에는 성난 팬들을 달래기 위해 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약을 다짐했지만 결국 김학범 감독은 시즌 도중 사퇴하고 말았다. 지난 2019시즌 최하위를 기록하며 2부로 강등

된 이후 제주 팬들에게 또한번의 치욕을 안겨준 시즌이었다.

제주SK는 2026시즌을 앞두고 2022 카타르 FIFA 월드컵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과 수석코치로 활약 한 지역가로 알려진 포르투갈 출신 세르지우 코스타 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하고 다시 비상을 꿈꾸고 있다. 제주SK는 코스타 감독이 벤투 감독과 함께 쌀아온 선진 축구 시스템 노하우와 철학을 갖추고 있고 K리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2026시즌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제주SK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 맞춰 ‘벤투호의 황태자’로 기대를 모은 권창훈과 리투아니아 국가 대표 공격수 가리스 파울리스카스, 브라질 출신 윙포드 네게바, 프랑스 출신 센터백 세레스틴을 영입하는 등 체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2024시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른 끝에 K리그1에 진류하는 수모를 당한 전북 현대가 거스 포엣 감독을 선임한 그때를 따라가는 듯하다. 전북은 포엣 감독 지휘 아래 지난 시즌 K리그1 22경기 무패를 달성하는 등 팀의 부활을 알리며 마침내 2021년 이후 4년 만이자 통산 10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코리아컵 결승에서도 광주FC를 꺾고 우승해 전북은 지난 시즌 더블(2관왕)을 이뤘다. 포엣 감독을 보좌했던 정조국 코치는 지금 제주SK 수석코치다. 전북의 사례를 따라가는 제주SK를 주목하는 이유이다. 더블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전북의 성과 절반만이라도 따라잡아 파이널 A 그룹에서 아시안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는 게 제주를 응원하는 팬들의 진정한 마음일 것이다.

## 열린마당

## 만다린 무관세 시대, 해법은 기본과 협력



강형미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주무관

공적언어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언어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짧은 문장, 빠른 확산, 즉각적인 반응 속에서 공무원의 언어는 곧바로 평가 대상이 된다. 한 문장의 부정확함이 오해를 낳고, 설명 없는 침묵이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구조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는 언어 감각이 공무원의 전문성이다.

공적언어는 시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정책의 이유를 설명하고, 결정의 배경을 공유하며,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 그 언어가 축적될 때 행정은 신뢰를 얻고, 공무원 개인을 넘어 제도가 존중받는다.

결국 공무원의 언어는 행정의 얼굴이다. 공적언어를 다룰 줄 아는 공무원이 많아질수록, 행정은 더 투명해지고 민주주의는 더 단단해 진다.

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2012년 첫 수입 이후 꾸준히 물량이 증가해 제주 만감류가 본격 출하되는 올해 3~4월 축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다린 무관세와 관련해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외부의 수입 물량 증가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그 축적을 증가시키는 내부의 유통 혼란과 품질 관리가 더 중요한 과제다. 이에 생산자, 유통인, 행정이 각자의 위치에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통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일부 유통 현장에서

는 수입산 물량 공세를 근거로 가격 폭락을 예단하며 농가에 저가 매입을 압박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비대면 거래 증가에 편승해 품질이 떨어지는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는 제주 감귤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눈앞의 이익보다 소비자 신뢰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농업인은 ‘완숙 출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 가격이 높을 때 출하하려는 마음에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출하 적기를 지키는 것은 농가 스스로 가격 방어선을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셋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마케팅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정은 현장 중심의 지원과 지도를 강화할 것이다. 과도한 공포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수입 동향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농가와 소비자 보호에 집중할 것이다.

##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종-3524호  
**동구치과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 원장 신동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